

오늘의 날씨와 생활

1월 24일 월요일 음 12월 22일 (14물)

기상정보

대체로 흐림

제주는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8℃ 내외, 낮 최고기온은 11~12℃로 전망된다. 중산간 이상은 낮은 구름대에 의해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30%	제주	30%
60%	성산	30%
30%	고산	30%
30%	서귀포	3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림

7/12℃

모레

흐림

6/9℃

월드뉴스

백신 실험용 원숭이들의 ‘탈출’

미국서 교통사고 틈타 도망가

미국에서 의학 실험용 원숭이들을 싣고 가던 트럭이 사고를 당한 사이 원숭이들이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펜실베이니아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게잡이원숭이 100마리를 싣은 트레일러를 끌고 가던 한 픽업트럭이 필라델피아에서 북서쪽으로 240km 떨어진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덤프트럭과 충돌했다.

부상자는 없었지만, 사고로 트레일러에 있던 원숭이 중 4마리가 탈출하는 바람에 영하의 추위 속에 대대적인 야간 수색 작업이 펼쳐졌다.

주 경찰은 야생동물 보호당국과 함께 수색에 나서 22일 오전 현재 3마리를 찾았으나, 나머지 1마리의

미국 고속도로 사고로 탈출한 실험용 원숭이.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다.

사고를 당한 트럭은 플로리다주의 한 실험실로 원숭이를 싣고 가던 길이었다. 마리당 1만달러(약 1193만원)를 호가하는 게잡이원숭이는 코로나19 백신 연구 때문에 수요가 매우 많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인근 호텔에서 일하는 목격자는 NYT에 전날 밤 기온이 영하 15도 정도로 떨어졌다면 “누군가 원숭이를 좁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며 안타까워했다.

백록담

문 미 숙
부국장 겸 경제산업부장

겨울철 전국 유통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월동무, 양배추, 당근 등 제주산 월동채소 가격이 줄줄이 폭락중이다. 산지에서 수급조절 없인 가격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판단에 제주도와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당근은 시장격리가 이미 진행중이고, 양배추도 이달안으로 250ha가 격리될 예정이다. 농작물을 출하하는 것보다 폐기하는 쪽이 낫다며 애써 키운 농산물을 트랙터로 갈아엎는 일이 ‘어쩌다’가 아닌 ‘일상’이 돼버린 암울한 현실 앞에서 농민들은 절망한다.

제주지역 1차산업의 지역내총생산

농업·농촌에서 꿈꿀 수 있는 대선 공약을

비중은 8.8%(2019년 기준)로 전국(1.8%)보다 4.9배 높아 지역경제의 한 축을 지탱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어 2020년 도내 농가인구는 7만9797명으로 2015년(9만3404명) 대비 14.6% 줄어 감소율이 충북(-17.0%) 다음으로 높았다. 고령화도 심각해 도내 농가인구의 28.8%는 65세 이상이다.

젊은 인구가 떠나기만 하고 유입은 미미해 농촌에선 외국인노동자 없인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지경이 됐다. 인건비와 비료 등 자재값 상승에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쏟아지는 다양한 수입농산물과 경쟁하느라 농사를 지을수록 부채는 쌓이고 있다.

다시 찾아온 대선의 계절, 역시나 1차산업 관련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의 삶이 어떻게 나아질지 체감되는 정책보다는 후보와 가족의 생활 복구가 쏟아지며 국민의 피로감

만 높아가는 와중에도 특정 연령대를 겨냥한 달콤한 공약들은 이어진다.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해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은 없이 병사 봉급을 월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중 비싼 비용 때문에 급여대상서 제외된 신약을 사용하지 못해 고통받는 이들이 적잖은데 특 투입어온 탈모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공약은 탈모가 생명과 직결되는 치료보다 더 시급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은 풍년이 들면 갈아엎고,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오르면 값싼 수입산을 푸는 식이어서 안된다. 중장기적인 수급계획과 근본적인 농정개혁을 통해 농민들에게는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고민은 1970년대 80%대였던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이 2019년 기준 각각 46%, 21%까지 급락한 상황에서 더 이상은 늦춰선 안된다. 쌀을 제외한 밀·콩 등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국제원자재값 폭등을 경험했다. 요 소수 대란에서 돈이 있어도 세계시장에서 원하는 것을 사올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았다.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주요 식량작물의 품종 확대를 통한 외래품종 대체,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 보전, 기후위기 대응책, 친환경농업·치유농업·청년농 육성, 유통단계 축소로 농가소득 높이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이 대선 공약에 담기고 국민적 공감대를 쌓아가면서 구체화돼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의 토대가 만들어지길 농업인들은 고대하고 있다.

열린마당

장애예술인 창작준비금, 팬데믹 시대 단비

고 은 숙
제주도 문화정책과

제주도에서는 지난해 장애예술인 창작지원을 위한 첫 사업으로 장애예술인 창작준비금을 5명의 장애예술인에게 지원했다. 지난해 시행해 보니 지원받은 장애예술인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들이 대부분이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그만큼 예술 창작을 ‘준비’하는 데 더 많은 노력과 자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창작준비금이 더 단비 같았어요.”(장애예술인을 둔 학부모 A씨) “코로나19도 그렇고 제가 장애가 있으니가 경제적 부담이 점점 생기는데 지원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작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매월 내는 보고서도 달마다 내가 이

렇게 하고 있구나 하고 돌아보면서 다음 달에는 이 부분을 더 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장애예술인 B씨) “가정주부라서 그런지 반찬 하나 사는 게 먼저 머릿속에 그려지지, 작업은 뒤로 밀리거든요. 그런데 지원금 받으면서는 그런 면에서 조금 자유로워졌죠. 그리고 나이가 50이 다 돼서 새로운 실험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른 기법도 시도해보고 싶고, 제가 또 입체 쪽을 새로 공부하고 있어서 예산이 큰 작업이 많거든요. 아마 지원금이 없었으면 새로운 생각 자체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장애예술인 C씨)

올해는 지원금액을 조금 낮춰 더 많은 7명의 장애예술인들에게 창작지원금을 지원하려고 27일까지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접수하고 있다. 보다 많은 장애예술인이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을 통해서 훌륭한 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역지즉개연(易地則皆然)’

김 동 한
제주도 물정책과

역지사지(易地思之)는 ‘땡자’ 제8편 ‘이루하(離婁下)’ 29장에 나오는 ‘역지즉개연(易地則皆然)’에서 유래한 말이다. ‘처지를 바꾼다 해도 하는 것이 서로 같다’는 뜻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뀐 입장을 고려해서 행동을 해야 비로소 공감과 소통이 완성된다는 의미이다. 소통과 공감의 핵심 비결은 역지사지다.

또한 ‘논어’ ‘위령공’ 편에 자공과 공자와 대화 과정에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평생을 지켜나갈 만한 한마디 말이 있습니까?” 공자가 답했다. “그

것은 관용(恕)이니,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己所不欲勿施於人-기소불욕물시어인)이다.” 고전에 나오는 구절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덕목이다.

물정책과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허가대상 관정은 3085공으로 유효기간 만료 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용기간이 종료돼 지하수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그러므로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시설 수허가자는 가까운 읍·면·동 사무실이나 혹은 도청 물정책과로 방문하기를 당부드린다. 지하수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수허가자는 꼭 알아주길 바란다. “연장허가 지연으로 인하여 불이익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할 것을.”

하하농법으로 대박나는 농사를!!

하하농법

이달의 농사 메모

하하농법

하하농법이란

희토류의 H와 아미노산의 A의 융합으로 21세기 최첨단 농법을 말한다

만감류(한라봉 · 레드향 · 천혜향)

- 수확이 끝나면 수세회복을 위해 3일 동안 관수해 준다.(추울때는 하지말것)
- 관수가 끝나 5일후에 형태적 화아분화를 위해 해피한 그린 + 글루칼을 5~7일 간격 2~3회 엽면시비
- 유기질 비료 및 복합 비료는 2월 20일 이후에 시비할 것

키 위

- 해피한 그린 + 글루칼 + 보르도액(5kg)을 20일 간격으로 엽면 시비할 것

마늘 · 양파

- 수세가 약하거나 늦게 파종한 농가에서는 잘커진액 + 희토류 + 농약혼용 살포해 줄것
- 세균성 바이러스가 의심되면 브이패스를 혼용 살포해 줄것

(주)포트라 제주지사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향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열린 기술 습득

기술인력 개발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설 (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